

의존의 길

1/29/2023

- 12월 27일 해변 여행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갑작스런 인식을 했습니다.
- 상호 연결... 불가피합니다.
- 우리가 삶 속에서 연결성이 서로 관계를 맺는 가장 건전한 방법입니다.
- 상호의 존성: 두 사람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것
- 상호 의존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걷는 사람, 매일 예수님을 의해 형성됩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입니다.
-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 먼저 이 고대 통로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것이 필수적인지 살펴보고, 그런 다음 함께 걷는 방법과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MVMT 1: 상호의 존성을 위해 만들어짐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이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돌고 있었다. -창세기 **1:1-2**

우리가 태초로 알고 있는 것에는 혼돈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소멸시킵니다.

혼돈은 질서, 목적, 의미로 대체됩니다.

한때 생명이 없었던 세상은 이제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망가진 것들을 다시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하나님이 망가진 피조물과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의도한대로?

그는 어떻게 의도 했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보트: 집앞마당에서 배가 그냥 서 있다면, 그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는 마당에서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냉장고를 문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종이를 바닥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의 목표는 그것이야합니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었다. 이처럼 그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의 창조적인 작업의 정점에서 그는 인류를 만듭니다.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다스리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27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를 채우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십시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서 움직이는 생물.”

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너희에게 주노니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들은 당신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30** 그리고 모든 이에게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는 모든 것이

생명의 숨결이 있는 모든 것, 나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그리고 그랬다.

31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창세기 **1:26-31**

● 하나님의 의도: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십시오. 왕과

여왕-거주하고, 경작하고, 창조물을 번식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넘겨주고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권위.

이제 창세기 1장이 5,000피트에 달하는 창조의 관점을 제공한다면,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6일째에 일어난 일, 즉 인류의 창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왜냐면

이것은 상호 의존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달하는 곳입니다 ...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돌보.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정원 안에;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8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나는 도우미를 만들 것이다
그에게 적합합니다.”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새를 지으시고

하늘에. 그는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데려가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사람이 각 생물을 불렀으니 그것이 그 이름이라 **20**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때까지 아담에게는 적합한 조력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1 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시자

깊은 잠에 빠지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그 사람의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어

살로 그 자리를 막았다. **22**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지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니

23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의 뼈다.

그리고 내 살의 살;

그녀는 '여자'라 불릴 것이다.

이는 그녀가 사람에게서 취하여졌음이라.”

24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5-25**

아담은 이브를 만납니다. 그는 처음으로 다른 인간과 연결되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 - 남자 옆에서. 리브는 나란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 적절한 조력자 - Ezer -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전사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할 때 에 제르 신이 나타나

그들의 구조에. 그런 다음 그들은 포위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이옵니다.

그녀가 들어와 그의 옆구리를 덮는 것을 돕습니다. 이와같이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그들의 취약성은 서로에게 안전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상호 의존.

왜 여기서 시작합니까?

"필멸자들이 항상 우리를 그들의 마음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작업은 사물을 차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래서. 이것을 당신의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사물을 변화시키는지 놀라웁습니다.

MVMT 2: 부패한 인간의 현실

관계

루이스에 대해 말하자면... 같은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쾌락주의자입니다. 그 모든 음식과 철야와 말뚝과 십자가는 정면. 또는 해변의 거품처럼. 바다 밖에, 그분의 바다 밖에는 기쁨이 있고, 더 많은 즐거움. 그는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는다.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자고, 씻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놀고, 기도하고, 일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용되기 전에 뒤틀려야 합니다. 우리는 싸운다 잔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편은 없습니다."

—CS Lewis, *The Screwtape Letters* (New York: Macmillan, 1950), 112-113.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뒤틀린 것입니다.

부패한 선입니다.

상호의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타락시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죄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의존적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누려야 했던 상호의존적 관계를 깨뜨리고 좌절시킵니다.

죄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타락자입니다.

죄는 인간 마음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로부터 100%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님.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구멍에서 우리 자신을 파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결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자신. 그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21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 고린도후서 **5:21**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죄의 궁극적인 결과를 담당하십니다.

그 안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평화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항상.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와 세상에서... 죄의 일부 증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몸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죄가 가져온 파괴를 처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숨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망가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의 상호의존성.

격리

-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 나는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다.
- 제공할 것이 없습니다.

사신 숭배

- 나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 객관화- (나도 모르게) 기분 좋게 널 써 버릴거야 .
- 잘못된 소속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와 약간의 투쟁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을 받침대에 올려놓고 내 것을 찾는 것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의 가치.

그러나 나의 진정한 투쟁은 격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독한 늑대. 당신을 도와주게 되어 기쁘지만 당신이 나를 돕게 하는 데 깊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체성을 키웠다.

충분한 투지와 결단력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작동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신이 인간의 인격으로 인간이 되셨다고 지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제한과 상호 의존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의 안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자립을 악이 아니라 미덕으로 보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관계의 진정한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 메커니즘.

길고 느리고 솔직히 때론 괴로운 상호의존으로의 여정은 나를 예수님께 훨씬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온전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예수님께,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관계의 형태로 온다. 그러나 치유는 오지 않는다.

고통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처럼 보이지만 고립치유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확고할 수 밖에 없다고 믿는

예수 안에서 찾았습니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18**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 고린도후서 **5:17-20**

하나님과 화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화해의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MVMT 3: 상호 의존의 사고방식

5 너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 -

빌립보서 **2:5**

마음가짐은 태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며

감정적으로.

이 명령에 뒤따르는 것은 화합에 대한 아름다운 훈계입니다.

겸손.

상호 의존.

- 당신의 차이는 내 삶에 질감과 관점을 제공합니다.
- 다양성이 좋습니다. 인류를 균질화하는 것은 나쁘고 위험합니다.
- 당신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당신은 당신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나는 우리 관계의 마찰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함과 기회

결론: 다음과의 상호의존성 배양

-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 우리가 테이블을 설정하지만 보여주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신뢰 없이는 상호의존도 없다

■ 취약성이 없는 신뢰는 없다

- 위험이 없는 취약점은 없습니다.

○ 그리고 위험은 무섭습니다.

- 왜?

○ 자신의 경험이 신뢰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그리드를 통해 작업을 실행하는 일반

경험(줄 수 있음)이지만

건강한 연결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다

-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안전입니다.

○ 취약성과 지혜

■ 과다노출이란? 안전하고 현명한 소통이란?

- 딸이 넷입니다.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사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가장 성스러운 공간은 그녀가 나에게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

○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다.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적절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 현실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관계에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상호의존에 대해 열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둔 관계에서 상호의존성을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 확신보다 호기심을 가져라.

○ 친절하고 호기심을 갖고 경청하십시오(방해하지 마십시오).

○ 먼저 연결하고 문제를 두 번째로 해결하거나 전혀 해결하지 않음

○ 팻 주목 - 무엇을 알아차리나요?

○ 질문하기 - "당신의 마음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때때로 "안전"의 경계에서 벗어나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의견을 요청하세요.

● 나눔(사도행전 2:42-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으며,

세계)

○ 물리적인 것

○ 정서적 지원

○ 영적 격려

● 서브

○ 어린이 400명, 성인 부족.

■ 성인과의 몇 가지 중요한 관계(주요 보호자가 아님)

아이의 삶의 궤적을 바꾸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니셔티브

○ 우리 시

● 차이점을 존중하고 타인의 Imago Dei를 존중합니다. (인류 전체가

인간의 한 가지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표시합니다.